

투데이



“핵없는 세상 만들어요”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 그리고 참가국 대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남뉴스

“고농축우라늄·플루토늄 제거”

‘서울 코뮤니케’ 만장일치 채택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참석 정상들은 27일, 고농축우라늄(HEU)과 플루토늄의 제거 및 최소화 노력을 통해 핵무기 원료인 핵물질 제거해 나감으로써 핵테러 가능성을 차단토록 한다는 내용의 정상선언문(서울 코뮤니케)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특히, 정상들은 핵물질 제거 및 감축과 관련해 HEU 사용을 최소화 하고기 위한 자발적 구제 조치들을 2013년말까지 발표토록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상회의가 끝난 뒤 가진 의장 기자회견에서 “자발적이긴 하지만 시간을 정했다는 점에서 핵테러 방지를 위한 정상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핵안보체제” 구축과 관련, 서울 코뮤니케는 핵물질감축협약(CPPNM)과 핵테러억제협약(IC-SANT)과 같은 핵안보 다자협력구범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특히 CPPNM의 국내 승인절차를 가속화해 2014년까지 이 협약 개정이 발표되기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연남뉴스

광주시 블로그 ‘빛이 드는 창...’ 시민기자단 모집

광주시는 공식블로그인 ‘빛이 드는 창 이야기’가 흐르다(www.sayg.com)의 시민기자단 50명을 오는 4월 13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민기자단은 1년간 활동하게 되며, 취재내용을 시 블로그와 개인블로그 그리고 SNS 등에 포스팅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대변인실(062-613-2164) 또는 문의하면 된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여수박람회 입장권 예매율 부진 어찌나

D-45일 3만2000장... 목표치 12% 그쳐 학생 단체관람 비싸고 기업 참여도 저조

여수세계박람회(5월 12일~8월 12일·이하 박람회) 개막이 4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지만 예매표 판매가 목표치의 12%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상이 걸렸다. 일부에서는 학생 단체관람 요금이 비싸다는 불만소리가 나오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박람회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현재 38만2000매의 입장권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방류했다가 적발됐다. 또 박람회 전용 물류센터가 있는 여수시 화지동 C급속탕기 제조업체는 방지시설 없이 오염된 공기를 내보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폐수를 무단 방류한 2개 업체를 고발하고, 다른 적발 업체에는 개선명령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가 예매됐지만 2월에는 3만매, 3월에는 8만매가 팔리는데 그쳤다. 개막 후 행사장에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당초 예매 목표치였던 300만매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이 예매율이 낮은 것은 정부의 관심이 그동안 온통 핵안보정상회의(26~27일)에 쏠려 있었던 데다, 기업체의 참여도 저조하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열린 정부지원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논의됐다. 김형식 국무총리가 주재한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핵안보정상회의

알림 제65회 무료 시민 건강강좌

30일 오후2시 전남대병원 5동 1층강당 안영근 교수의 ‘심근경색증 바로 알기’

광주일보사와 전남대병원은 오는 30일 제65회 테마가 있는 시민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시민강좌는 전남대병원 전문의진이 직접 나서 강연하고,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강좌는 안영근 교수(순환기내과)의 ‘심근경색증 바로 알기’를 주제로 열린다. 이번 강좌에서는 심장혈관이 혈전, 연축 등의 원인에 의해 갑자기 막혀서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질환인 심근경색증의 증상·원인, 진단·검사, 치료·예방법에 대해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소개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강의 내용은 오는 4월 2일 광주일보에 게재됩니다.

강사: 안영근 순환기내과 교수. 주제: 심근경색증 바로 알기. 장소: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문의: 전남대병원 홍보실(062)220-5092

박람회장 주변 폐수 무단방류 심각

영산강환경청 20개 업소 적발...전남도 대책회의

“여수세계박람회 행사장 인근 바다에 폐수를 버리다니...”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한 2012여수세계박람회(이하 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여수 바다에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최근 여수와 광양만권 오염 배출 업소 47곳을 대상으로 전남도 등과 합동 단속을 벌여 42% 가량인 20개 업소를 적발했다. 여수시 율촌면 A수산물가공업체

이처럼 박람회장 주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저조하자 전남도는 오는 30일 전남도 동부출장소에서 여수, 광양만권에서 영업 중인 155개 업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박람회 대비 오염물질 배출업체 대책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오염 행위 사전 예방 홍보와 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등을 논의한다. 전남도는 또 박람회 행사 기간 동안 민·관합동점검을 늘리고 자동차 매연, 오토, 비산먼지 등 대기환경 관리도 강화한다. /오광복기자 kroh@

서남해안 일주도로 건설 탄력

국비 1786억 집중 투입 13개 지구 8.9km 조기 완료

남해안을 중심으로 유(U)자형으로 도로를 연결하는 ‘서남해안 일주도로’ 전남 구간 건설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전남도는 27일 “올해 서남해안 일주도로 건설에 국비 1786억원을 집중 투입해 안해~운남, 적금~영남, 돌산~화대, 신지~고금 등 13개 지구 8.9km를 조기 완료하는 등 전남 구간을 조속히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남해안 일주도로 1270.9km 중 전남 구간은 영광에서 여수까지 연결하는 564.2km다. 지난해까지 연륙·연도 구간인 신지대교·고금대교·백야대교 등 4개 지구를 포함한 271.3km 구간이 완료됐다. 오는 4월에는 여수~고흥 연륙·연도 사업 11개 지구 중 화양~적금간 4개소(16.8km) 구간 공사가 시작되고, 올 하반기에는 영광~해제 간 영광대교 구간(9.5km)이 착공한다. 전남도 윤진보 건설방재국장은 “서남해안 일주도로는 다도해 해양관광권 개발과 영남·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무안공항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2012년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안내 공고

지역경제부공고 제2012-161호. 2012년 3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 육성 등을 통한 지역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역소재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1. 지원대상 2. 지역별 지원분야 3. 지원별 전략산업(특화분야)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대상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 4. 지원액 5. 신청자격 6.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한도 7. 지원절차 및 유의사항